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동향

2016. 5

박희대

■ 배경	4
■ 중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 동향	6
■ 최근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전략 변화	12
■ 시사점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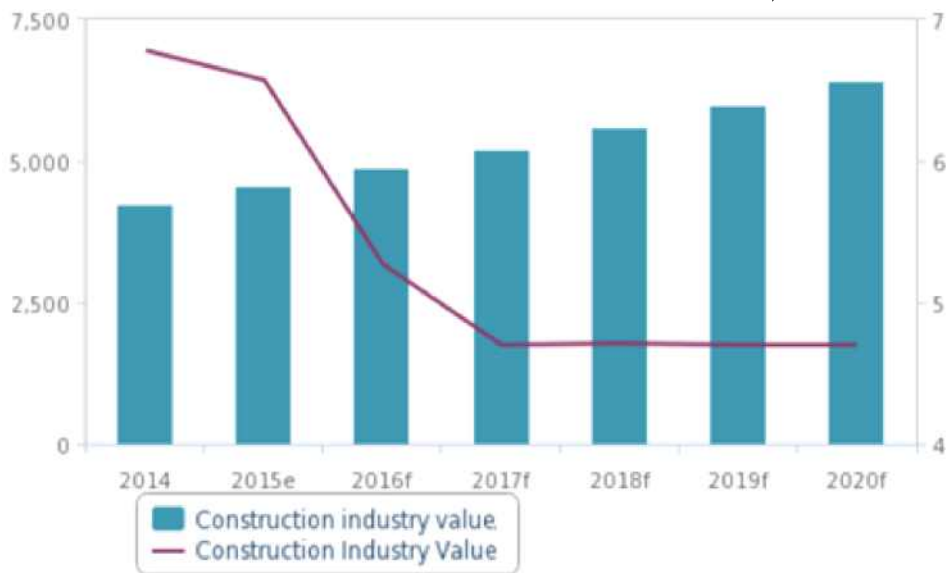
- ▶ 중국의 내수 건설시장이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중국 건설기업 수는 800개사를 넘어섰으며, 해외 건설공사 매출 규모에서도 미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1위로 성장하였음.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 기업 수와 매출 규모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 간 9배 성장하였음.
- ▶ 중국 건설기업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높은 점유를 지속하며 북미와 유럽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에 힘입은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에도 활발한 양상을 보임.
 -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인프라 확충에 따라 내수 건설시장의 성장세 또한 5%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정부도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 최근 중국 기업들은 변화된 경제 전망 및 글로벌 건설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며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및 투자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업 영역의 확대와 해외 생산 능력 향상, 조달 역량 강화, 제조 원가 절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자체 기술력 강화보다는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며, 이는 국영 기업으로서의 풍부한 재정적 역량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됨.
- ▶ 중국 정부도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NDB, AIIB, EBRD 등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을 발굴, 자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의 지분이 높은 AIIB, NDB뿐만 아니라 EBRD와의 연계를 통한 건설사업 지원이 예상되며,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도모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I. 배경

- 최근 십여 년 사이 중국 건설시장은 그 규모와 성장세로 인해 글로벌 건설시장과 해외 건설시장 모두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로 부상하였음.
- 글로벌 건설시장이 2030년까지 약 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인도와 함께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건설시장은 2012년 기준 글로벌 전체 건설생산(output)의 약 18%를 차지하였는데, 2025년에는 비중이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
-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중국 내수 건설시장 역시 5% 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은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음.
-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의 GDP 성장률은 7% 이내로 하락하였으며, 최근까지 7%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 온 건설시장도 2016년 이후부터는 5% 미만의 원만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 건설시장의 규모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십억 위안(좌축), %(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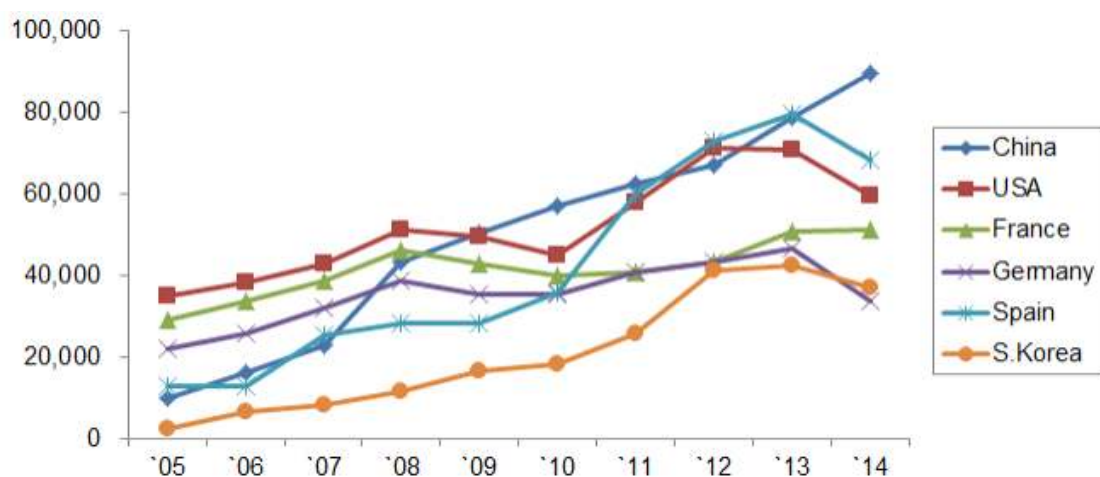
출처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²⁾

1) Reina, P. (2015) New Survey : Worldwide Construction Market to Grow 4% Annually to 2030, Engineering News Record.

-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아시아·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그 수주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를 발판으로 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중국의 건설기업들은 이제 해외 건설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음.
-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중국 건설기업은 약 800개사에 달하며³⁾,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14년에는 896억 달러를 기록,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매출액인 37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그림 2> 참조).
-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뉴스 전문지인 Engineering News Record(ENR)가 2012년부터 상위 중국 건설기업·설계기업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음.
- ENR은 Top Chinese Contractors, Top Chinese Design Firms 발간을 통해 상위 80개⁴⁾ 건설사와 상위 60개 설계사의 목록과 매출액 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국가별 연간 해외건설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ENR,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2) BMI(2016) Industry Trend Analysis : China 'Going Global' Continues Unabated,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3) 중국 해외건설협회 2016년 자료.

4) 2013년까지는 상위 60개사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상위 80개사를 발표하고 있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저비용의 경쟁력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사업을 수주해 왔으나 최근에는 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 선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추진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기존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과 중국의 자체 건설인력·자재 조달을 통한 저렴한 공사비, 그리고 공기 단축 등이 중국 건설기업들의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받았음.
- 이제는 선진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글로벌 단위의 메가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등 한층 진화된 양상을 보임.
- 최근 국내 시장의 위축과 해외 건설시장의 침체로 많은 국내 건설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상기와 같은 중국 건설기업들의 다양한 해외 건설시장 전략 구사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중국 국영 건설기업들의 전략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민간 건설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글로벌 시장의 핵심 경쟁 대상으로서 중국 기업들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수주 동향 및 최근의 전략적 행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건설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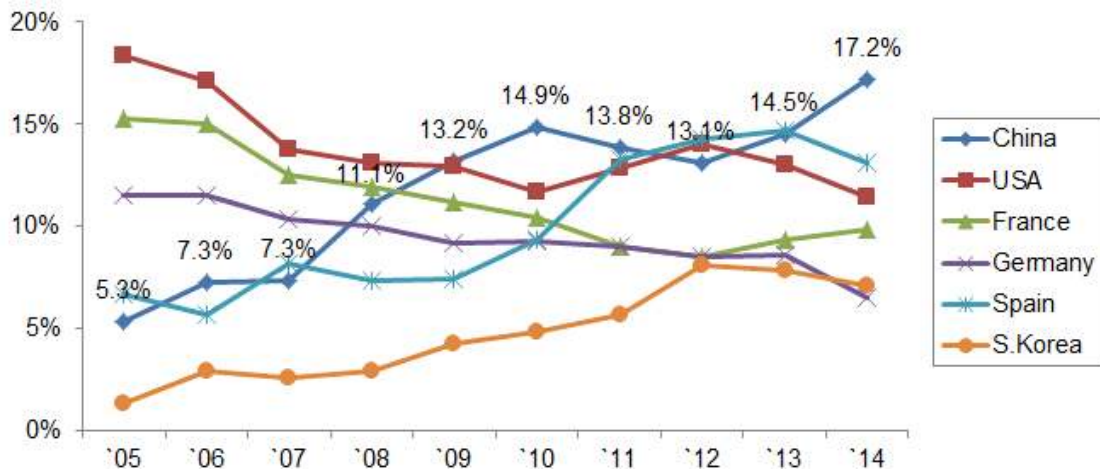
II. 중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 동향

□ 국가별 매출 점유에서 미국을 제쳐

-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9배로 성장하였으며(매출액 기준), 2014년에는 미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전체 해외건설시장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그림 3> 참조).
- ENR의 해외건설기업 매출액 통계⁵⁾에 따르면, 2005년 중국 기업들의 매출 비중은 5.3%(약 1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2014년에는 17.2%(약 890억 달러)로 국가별 비교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였음.

5)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6-2012,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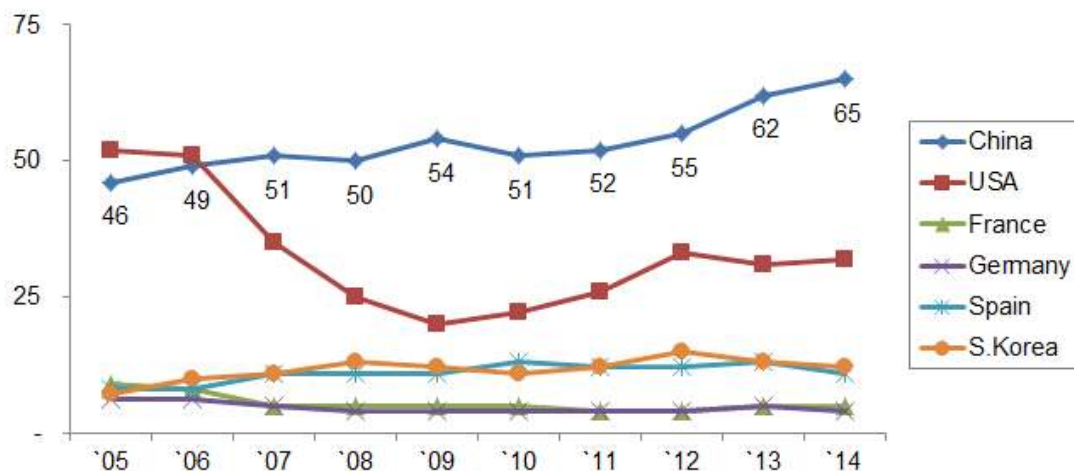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 점유 현황



자료 : ENR,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 또한 2007년 이후 매년 중국 기업 중 50개 이상의 기업이 매년 ENR 상위 해외건설 수주 기업으로 포함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 수 또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2013년부터 ENR의 조사 대상 기업 수가 225개사에서 250개사로 확대되었으나,⁶⁾ 순위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225위 이내에 자리하였음.
- 반면, 상위 기업에 포함된 미국의 기업 수는 2006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지난 10년 간 크게 변동이 없었음.

<그림 4> 국가별 상위 해외건설 기업 수



자료 : ENR,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6) ENR은 2012년(2011년 시장정보 반영)까지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를 발간하였으나, 해외건설기업의 증가를 반영, 2013년(2012년 시장정보 반영)부터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로 변경, 상위 250개 기업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ENR이 선정한 2015년 글로벌 상위 10위권 건설기업 중 1~4위, 7위와 10위 등 총 6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었으며, 해외 상위 10개 건설기업 중에서는 5위 1개사가 중국 기업이었음.
- 다만, 글로벌 상위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중국 기업 중 해외건설 상위 10위권에도 포함된 기업은 1개에 불과하여, 중국 상위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ACS, Hochtief, Bechtel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ENR 250대 상위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 중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17%에 달하며 상위 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가 무려 65개사임을 감안하면, 수주 경쟁력을 갖춘 중국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2015년 글로벌 · 해외 상위 건설기업

(단위 : 백만 달러)

상위 글로벌 건설기업			상위 해외 건설기업		
순위	기업명	매출액 ¹⁾	순위	기업명	매출액 ²⁾
1	China Railway Group	113,105	1	ACS(스페인)	38,707
2	China State Construction Eng	110,579	2	Hochtief(독일)	29,299
3	China Railway Construction	97,044	3	Bechtel(미국)	21,414
4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60,314	4	Vinci(프랑스)	19,679
5	Vinci(프랑스)	51,868	5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15,827
6	ACS(스페인)	46,081	6	Technip(프랑스)	14,223
7	Power Construction Corp. of China	38,689	7	Bouygues(프랑스)	14,201
8	Bouygues(프랑스)	32,335	8	Skanska(스웨덴)	14,024
9	Hochtief(독일)	31,118	9	Strabag(오스트리아)	13,972
10	China Metallurgical Group	30,026	10	Saipem(이탈리아)	13,623

주 : 1) 2014년 전체 공사 매출액

2) 2014년 해외 공사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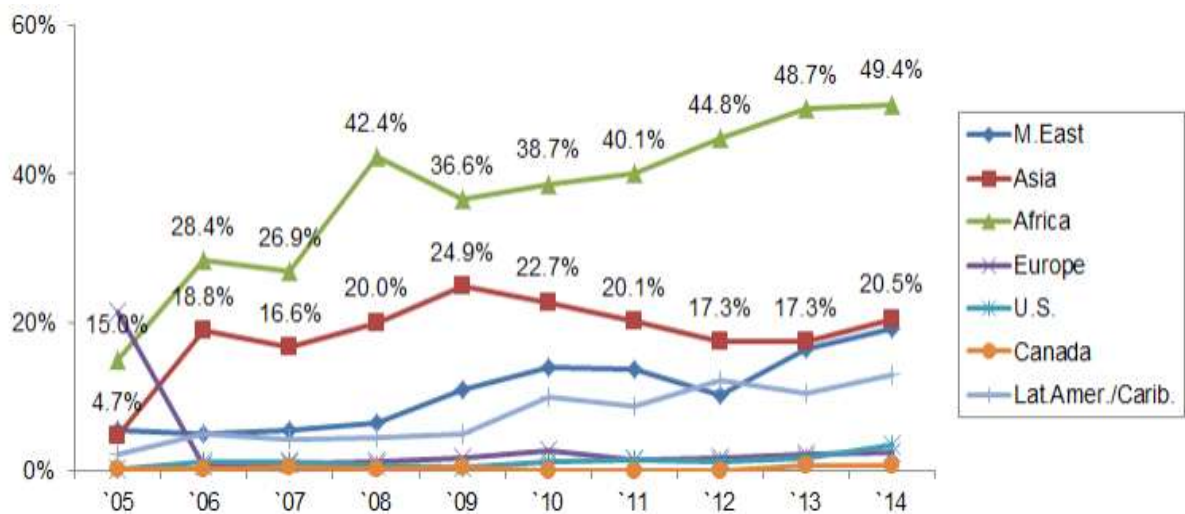
자료 : ENR (2015)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독보적 점유 지속

- 중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는데, 아프리카 시장의 점유율은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2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5> 참조).
- 2011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14년에는 49%를 넘어섰음.

-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점유율은 20% 미만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 시장의 점유율은 2~3% 내외로 낮은 편임.
-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의 점유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미 및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해외 건설시장 각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의 입지 및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주요 건설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자료 : ENR,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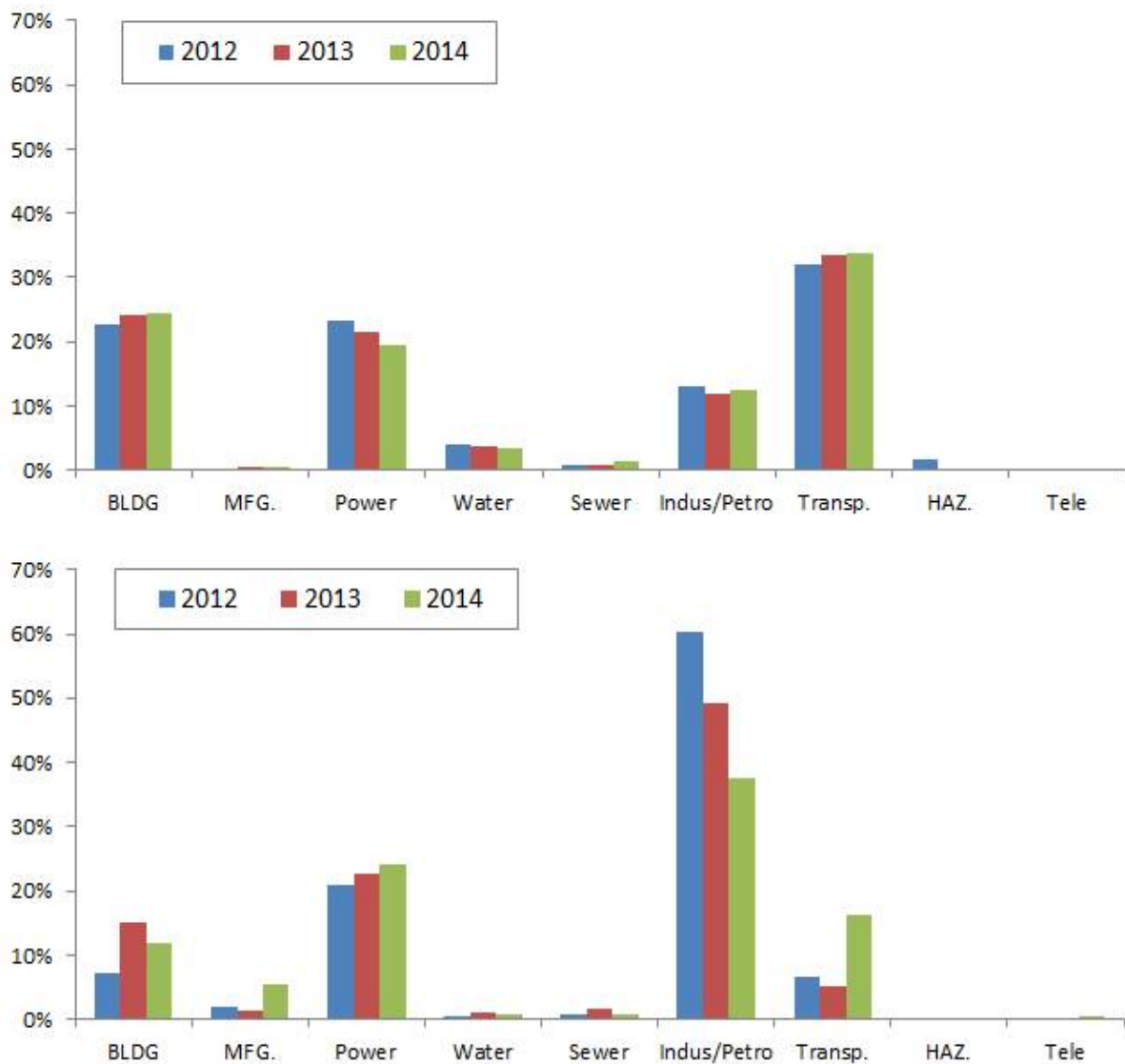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비해 공종별 수주 비중 고른 편, 교통 분야 다소 높아

- 최근 3년 간의 공종별 수주 비중에서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른 양상을 보임. 우리 기업들의 산업설비 및 석유화학 분야 비중이 40~50%인데 반해 중국은 건축, 발전소, 교통, 산업설비 및 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비슷함.
-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등 교통 분야는 타 공종에 비해 기술 난이도가 낮고 가격의 영향이 높은 도급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자체 건설인력 및 자재 등의 공급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획득한 중국 기업의 수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특정 공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수주 양상은 향후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국 건설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주 및 성장 기반을 갖추

고 있음을 시사함.

- 최근 유가의 급락은 중동 지역의 프로젝트 발주 취소 및 지연을 가져왔는데, 이는 중동 지역에서 산업설비 수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해외 수주 급감으로 이어졌음.
- 반면,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한 특정 공종의 침체, 발주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한 타격이 비교적 적은 구조로 볼 수 있음.

<그림 6> 최근 3년 간 공종별 수주 비중(위 : 중국, 아래 : 우리나라)



자료 : ENR, Top 225/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 정부 지원에 힘입은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많아

- 중국 기업들은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 중국수출보험공사(SINOSURE) 등의 금융 지원에 힘입어 해외 건설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도 선진국 기업만큼 활발하게 수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수주한 해외 사업 중 약 절반 가량이 BOT/PFI/PPP 등 투자개발형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⁷⁾
 - 참고로 세계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미국과 독일 기업들은 전체 수주 사업의 65~75%이 투자개발형 사업임.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는 전체의 3%에 그치고 있음.⁸⁾
- 중국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의 소구권이 제한되는⁹⁾ 소위 ‘중국형 투자 모델(Chinese Project Financing Model)’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낸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짐.¹⁰⁾
 -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해외건설 지원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해외 금융기관의 요구 사항에 비해 사업의 수익성 평가 및 사업자와의 리스크 분배에 있어 중국 건설기업들을 배려해 왔음.
 - 이로 인해 중국 건설기업들과 외국 금융기관은 해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및 리스크 분배에 있어 상반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일부 해외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기자재 품질에 대한 우려로 중국 건설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발전소 분야 기자재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해외 금융기관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7) Zhang S. (2015) International Contracting Business of Chinese Contractors: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Opportunists, The 27th Global Construction Forum in Korea, 2015.8.26.

8) 이석우 「심층 분석 : 중국 수주 절벽 현실로... 올 들어 떠난 공사 작년의 6%」, 조선비즈, 2016.3.29.

9) 소구권 제한(Non Recourse, Limited Resource) : 투자자가 프로젝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된 수준의 상환 요구만 할 수 있는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차입금에 대한 제한적 책임을 지고, 투자자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사업에서 중국의 은행들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해 왔음.

10) McNair, D., 「The Rise of Chinese Contractors on International Projects」, Mondaq, 2013.2.4.

III. 최근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전략 변화

1.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전략

□ 선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인수·합병 및 투자

- 최근 중국의 최대 건설기업 중 하나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社를 비롯한 많은 중국 건설기업들이 유럽과 북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社 대표 Zhou Jichang은 인수·합병을 유럽·미국 등 선진 건설시장에서 현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으로 꼽았음.¹¹⁾
- 적극적인 인수·합병은 진입 장벽이 높은 선진 건설시장으로의 진출 및 현지화, 그리고 선진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이 부족한 설계·시공·조직 운영 및 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China State Grid社는 유럽의 유틸리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전력망 설비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China General Nuclear Power社는 영국 내 신규 원전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영국 Hinkley Point 원자력발전소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표 2> 중국 기업들의 주요 해외 인수·합병 및 투자 사례

기업명	대상 기업·사업	특성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Friede Goldman United(미국)	· 미국의 대형 해양 시추장비 설계 및 생산기업 · 북미 및 글로벌 시장 활용 및 조달 역량 강화
Zoomlion	Terex Corporation(미국)	· 다국적 건설 중장비 및 광산기계 생산기업 · 100여 개 국가에 구축된 2,000여 개의 딜러망 활용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	Hinkley Point 원자력발전소(영국)	·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지분 33.5% 확보 · 영국 내 후속 신규 원전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예상
China Jiangxi Corp for International Economic & Technical Cooperation	해외 건축자재 등 공장 설립 (보츠와나, 잠비아, 가나 등)	· 금속공장 및 아스팔트 생산공장 건설 · 글로벌 자재 조달 역량 향상
China State Grid	전력망 설비기업 (포르투갈, 이탈리아)	· 유럽 유틸리티 시장 진출

11) Chang, B., 「Contractors seeking more M&A deals abroad」, China Daily, 2012.12.18.

- 또한 선진국 기업의 인수·합병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존의 거래 네트워크 흡수를 통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함.
- 중국의 Zoomlion社가 핀란드 기업 Konecranes와 함께 인수를 추진 중인 (48억 7,000만 달러 규모) 미국의 Terex社는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 등에 50여 개의 생산시설을, 그리고 100여 개 국가에 2,000개 이상의 딜러망을 구축하고 있어 성사시 Zoomlion社의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중국 기업들의 선진국 기업 인수·합병의 효과

기업 역량 강화 측면	진출 시장 확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 기업의 설계·시공 기술 확보 • 선진 기업의 조직 운영 및 관리 역량 학습 • 생산 능력 향상 및 제조 원가 절감 등 글로벌 조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합병 대상국 건설시장 진출 • 해당국 시장에서의 손쉬운 현지화 달성 •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기존 거래네트 워크 흡수 • Supply Chain 확장

□ 글로벌 생산·조달 역량 강화 및 사업 영역 확대

-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투자는 신규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능력 향상, 조달 역량 강화, 제조원가 절감 및 사업 영역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
-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社의 해양 시추장비 설계·생산 기업 인수와 Zoomlion社의 건설 중장비 및 광산기계 생산 기업 인수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각 기업의 생산 능력 개선 및 제조원가 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China Jiangxi Corp for International Economic & Technical社는 해외 시장의 안정적인 자재 수급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보츠와나, 잠비아, 가나 등에 금속공장 및 아스팔트 플랜트를 건설,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은 유럽 및 북미 시장과 같이 현지 노조 및 건설 규정으로 인해 중국의 저렴한 노동 인력 및 하청 기업을 동반할 수 없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최대의 원자력발전회사인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은 해외시장에서 우라늄 채굴 및 거래 등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동시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부동산 및 쇼핑몰 건설기업인 다렌완다社は 건설 외 다른 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부동산·건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이 기업은 미국의 최대 영화 체인 기업인 AMC社와 영화사 레전더리社를 인수하고, 영국의 요트 사업과 런던의 호텔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 인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렌완다社は 부동산 사업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반면 전자상거래, 금융, 엔터테인먼트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부동산 매출이 65%,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17%를 차지했음.¹²⁾

2. 중국 정부의 직·간접 해외 진출 지원 현황

- 상기와 같은 중국 건설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와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급속한 진출 확대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데, 최근 중앙정부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방식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연계 강화

- 중국은 지난해 브릭스(BRICS) 5개국이 함께 설립한 신개발은행(NDB)¹³⁾과 올해 공식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도 가입하는 등 여러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 중임.
- 우선, NDB는 2016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사업 금융 지원을 시작하여 연내에 20

12) 한중화, 「다렌완다, 작년 매출 52조원… 19%↑」, 연합인포맥스, 2016.1.11.

13) New Development Bank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설립한 BRICS Development Bank의 새 명칭임.

여 개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AIIB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NDB는 러시아 서부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을 위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¹⁴⁾함으로써 중국 자금의 대거 동원과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음.

- 중국은 최근 1,000억 달러 자본으로 출범한 AIIB의 30.84%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표 4> 주요 다자간 개발은행의 중국 지분 현황

기관명	중국 투자 지분	비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30.34%	지분 1위
신개발은행(NDB)	20%	창립 회원국
아시아개발은행(ADB)	6.5%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0.1%	65번째 회원국

- EBRD의 65번째 회원국이 된 중국은 앞으로 유럽 내에서 EBRD와 중국개발은행, AIIB와 공동 출자하는 건설사업에 중국 건설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주요 투자는 원자력발전소, 수자원 및 항만 등 유럽의 전략적 자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¹⁵⁾ 이에 따른 건설 수요가 중국 건설기업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EBRD의 창립 회원국으로 1991년 가입한 바 있으나, 지분이 1%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EBRD의 투자를 이끌어내 사업을 수주한 최근 사례는 2012년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공사 1건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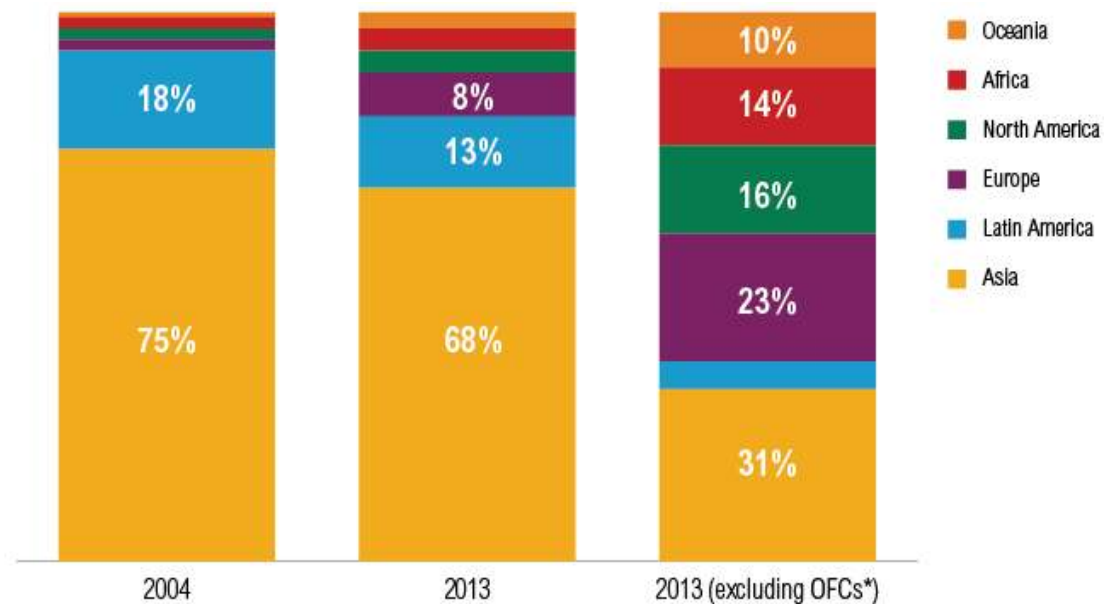
14) 박하나, 「브릭스 주도 NDB 침체 타개 맞손... 10억 달러 위안화 채권 발행」, 파이낸셜뉴스, 2016.3.11.

15) Dasgupta, S. (2016) Chinese Construction Firms Eye Opportunities in Europe, Engineering News Record.

□ 해외 직접투자, 유럽·북미 지역으로 확대

- 2013년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overs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는 6,130억 달러 규모로 2004년 450억 달러에서 10년 간 13배 이상 증가하였음.¹⁶⁾ 이는 중국의 투자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 기존 중국의 OFDI는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과 호주, 캐나다 등 자원 부국에만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북미·유럽 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어 중국의 전체 OFDI 중 북미·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이르렀음(<그림 7> 참조).
- 최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중국이 지난 10년 간 OFDI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OFDI는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 10년 간 약 2,46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손실의 대부분이 에너지 및 광업 분야의 채산성 부족, 자연 재해, 외국 정부 반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그림 7>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OFDI) 지역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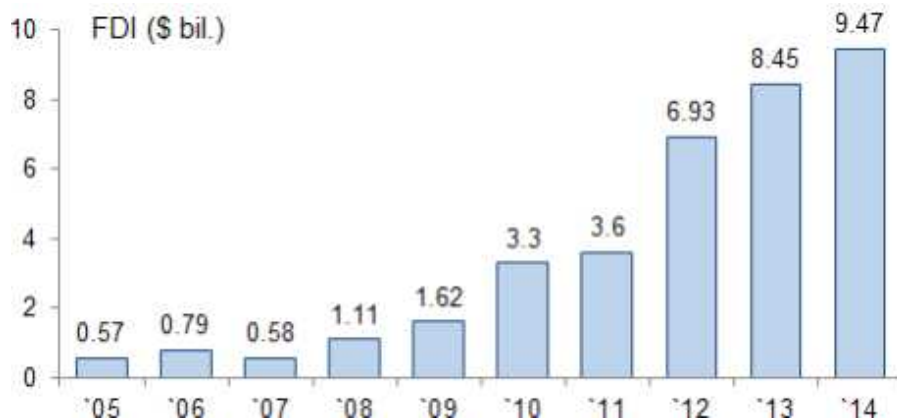
출처 : World Resources Institute.

16) Zhou, L. and Leung, D. (2015) China's Overseas Investments, Explained in 10 Graphics, World Resources Institute.

17) 이재준, 「중국 대외 투자서 10년 간 285조원 규모 손실 기록」, 뉴시스, 2015.12.2.

- 중국은 기존의 개발도상국 및 자원 부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나가는 가운데, 아시아·북미·유럽으로의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으로의 OFDI 규모는 2005년 이후 10년 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그림 8> 참조).

<그림 8> 미국 내 중국의 직접 투자(FDI) 추이



자료 : Statista.¹⁸⁾

- 중국의 OFDI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채굴·광산, 교통 등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전체 OFDI의 33%를 차지하는 임대업의 상당 부분은 건설을 비롯한 타 산업으로의 재투자 및 자산관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일례로 중국의 최대 해운항만기업인 China Cosco Holdings社는 그리스의 핵심 항구인 Piraeus의 67% 지분 확보를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인 항구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5> 2012년 중국의 산업별 해외 직접투자(OFDI) 비중

영역	비중
임대업(Leasing and Business Services)	33%
금융업(Finance)	18%
채굴·광산업(Mining)	14%
도매·소매업(Wholesale and Retail Trade)	13%
교통 및 저장고(Transportation and Storage)	6%
제조업(Manufacturing)	6%
기타	10%

자료 : World Resources Institute.

18) Statista(2016),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rom China in the U.S. from 2002 to 2014, The Statistics Portal.

□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 ‘OBOR’ 추진

- 중국은 육로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해상으로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여 총 25개국을 연결하는 ‘新실크로드(OBOR : One Belt, One Road Program)’ 사업¹⁹⁾을 추진 중에 있음.
- OBOR 사업은 유럽 국가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유럽의 인프라 일부를 정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에 영국과 독일은 해당 사업에 환영을 표한 바 있음.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OBOR 사업 지역에는 향후 막대한 투자와 중국 건설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9>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계획



출처 :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²⁰⁾

- 중국은 이미 OBOR 사업에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펀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²¹⁾ 또한 이 사업은 다자간개발은행 중 중국의 투자지분이 큰 AIIB의 우선투자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19) 영어로는 One Belt, One Road Program(OBOR)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한문 표기인 一帶一路(일대일로)로도 불림.

20) EIAS(2016) EIAS Fellow Omar Alam Discusses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http://www.eias.org/index.php/news/202-omar-alam-cpec>.

21) BMI(2016) Industry Trend Analysis - China ‘Going Global’ Continues Unabated,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중국은 이미 OBOR 사업 구간 중 중국 국경에서부터 파키스탄의 Gwadar 항만을 잇는 연장 2,400km(예상 사업비 460억 달러)의 대규모 도로 건설에 착수하였음.
-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및 부채 증가 등의 리스크로 인해 OBOR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며, 또한 여러 나라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합작 투자 및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최근 중국과의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 방안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²²⁾과 중국의 OBOR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음.²³⁾

IV. 시사점

□ 투자개발형 사업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의 활용

- 중국 기업들은 BOT/PFI/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 비중이 높고, 외국 인프라 시설(영국의 원자력발전소, 그리스의 항만 등)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한 후속 사업 발굴 등 다양한 해외 진출 경로를 개척하고 있음.
- 해외 직접투자, 다자간 개발은행 연계 등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 건설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조성,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반면,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투자개발형 사업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외 공사 수주의 대부분을 도급공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위한 경쟁력도 낮은 실정임.
-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해외 건설시장의 추이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

22) 2013년 10월 개최된 ‘유라시아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주창된 개념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하에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 간의 상생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외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임. 「이재영(201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 전략 연구”, 슬라브학보 30(2), 287-315」 참조.

23) 강병철, 「한·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정책 협력 강화」, 서울신문, 2016.4.20.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결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 노력이 필요함.

□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 중국 건설기업들은 국내외 시장 상황과 건설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외 건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다방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역량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중국 정부도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적극적임.
- 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는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국영 기업이기에는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과의 상이함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특히 인수·합병을 통한 건설 생산원가 절감과 해외 자재 생산을 통한 조달 역량 개선은 선진 시장의 높은 건설 안전 및 품질 기준, 강력한 노동법으로 인한 중국 노동 인력 동반 진출 제약 등에 따른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음.
- 우리 건설기업들도 몇 차례 해외 인수·합병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그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업 영역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전략임.
- GS건설은 2012년 물산업 유지 운영 단계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세계 담수화시장 12위 스페인 기업인 Inima社를, 2015년에는 브라질의 상하수도 운영 기업인 사마르社를 인수하였음. 삼성물산도 2013년 영국의 LNG 저장탱크 및 인수기지 설계 전문기업인 Whessoe社를 인수한 바 있음.

□ 소화 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인수·합병은 경계해야

-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이 해외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님. 중국 기업들이 올 들어 추진한 해외 인수·합병 자금의 절반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올 들어 추진된 중국의 10억 달러 이상 해외 인수·합병은 총 727억 달러 규모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 약 363억 달러에 육박, 자금의 절반 가량을 빚을 내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음.²⁴⁾
- 또한 중국의 작년 3분기 비금융기업 부채는 17조 4,000억 달러로, 미국의 12조 6,0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아²⁵⁾ 중국발(發) 신흥국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건설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인수·합병을 비롯한 해외 투자 결정시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영역 및 소화 역량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및 기업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인수·합병 대상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 및 정책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정부의 다자간 개발은행 연계 강화 및 OBOR 사업 추진 등의 전략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실질적인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3년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 물류, ICT,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 및 정책적 협력 논의 이외에 투자 계획 등 실질적인 추진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최근 해외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건설 기업들의 투자개발형 수주 역량 제고 및 진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나, 실제 수주는 개별 기업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실정임.
- 투자개발형 사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토,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의 참

24) 최근 중국 국유기업 CHEMCHINA가 스위스의 농업생물공학 기업 신젠타 인수시 인수 대금 430억 달러를 넘어서는 500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 이윤·김경윤, 「중국 기업부채 신흥국 전체의 71%… 신흥국 위기 뇌관 우려」, 연합뉴스, 2016.03.08.

여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자금 조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유도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추진은 미진한 실정임.
- 최근 EBRD와 연계한 사업은 지난 2012년 SK건설이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 대주단으로부터 9억 6,0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확보해 수주한 유라시아 해저터널(터키의 최초 PPP 사업) 한 건에 그침.²⁶⁾
-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건설 금융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는 자금 규모가 각각 3,500억원, 20억 달러에 그쳐 다자간 개발은행과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임.

박희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26) 윤도진, 「해외건설은 지금 : “프로젝트를 장악하라” - 디벨로핑」, 비즈니스위치, 2016.3.15.